

칸디다 회퍼가 찍은 깨달음의 공간

July 28, 2018 | 노태영 기자

오는 8월 26일까지 국제갤러리서 개인전



[사진=국제갤러리]

독일 출신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(74) 개인전이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 2관에서 오는 8월 26일까지 열린다. 이번 전시는 공연장, 도서관, 미술관 등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촬영한 공간들을 주목한다. 무엇보다 인간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. 그는 '베허 학파' 1세대 작가로, 사람이 없는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 공간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.

URL:

<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277&aid=0004286004>